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자연경관·문화유산에 실감미디어 기술 접목

## 전북, 'K-실감산수 콘텐츠' 거점으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실감 아일랜드 선유  
전주한옥마을 K-컬처  
라이브 파크 조성 등  
3대 프로젝트 제안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K-문화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 전북 곳곳에 있는 자연 경관(Landscape)과 문화유산(Heritage)에 실감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장소 기반 K-실감산수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상품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전북이 품은 자연·문화유산 장소와 생태적 경관 장소, 역사적 사건 장소, 상징적 공간·시설 장소를 활용해 실감산수 콘텐츠를 만들고, 시·군 유사 출연 기관이나 민관협력 사업단을 구성해 상설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그간 다양한 실감 콘텐츠가 개발됐고, 우수한 콘텐츠도 많지만, 용역공모방식으로 인해 매년 새로운 민간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한계를 보여왔으며, 지자체별 단타성 용역사업이 행사가 끝나면 실감 콘텐츠를 상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장세길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실감 콘텐츠는 장비만 있으면 장소를 가지지 않아 전북에서 개발된 게임인데도 굳이 전북에 오지 않아도 체험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지역의 체감 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지역의 독특한 장소 자산에 실감 미디어 기술을 입히고 이를 특별하게 육성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쟁력 있는 K-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실감산수'는 2004년 중국 계림에서 첫선을 보인 이른바 '인상시리즈' 실감산수 상설공연을 차용한 개념이다. 사람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중국 공연 방식이 아니라, 자연·문화유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6일 임실호국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등 실경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감 콘텐츠와 최소화된 실제 공연을 접목하는 공연을 말한다.

장세길 박사는 전북이 한국 문화유산의 대표 지역인만큼 K-실감산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으면서 전북을 해리타지·경관과 첨단기술 융합의 K-실감산수 콘텐츠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3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감 아일랜드 선유(仙遊)'다. 고군산군도에서 추진되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첨단기술(AR 모노레일, 인터랙티브 슈퍼트리, 초대형 미디어 월)을 접목한 해양유산 관광콘텐츠를 적용함으로써 K-실감산수 양극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을 'K-Culture LIVE PARK'로 만들자는 게 두 번째 프로젝트이다. 한국의 역사·문화유산·경관, 창의적 활동, 한국문화 체험관광객

이 집결된 전주한옥마을을 K-실감산수 콘텐츠의 테스트베드이자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장세길 박사는 이어 14개 시·군의 공동 프로젝트로 'K-유산풍경(HeritaScape) 미디어아트'를 제안했다. 전북 내 세계유산과 시군 대표 유산, 지역의 독특한 경관과 스토리를 연계해 K-실감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공연을 추진하자는 게 주내용이다.

장세길 박사는 "다양한 제안이 빛을 보려면 신속한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K-실감산수 콘텐츠 거점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책사업화로 연결하는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설 공연을 위한 'K-실감산수콘텐츠사업단'의 구성, 실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특례 적용)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 도, 14일까지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저감시설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유역 외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전북 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산지,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이번 점검은 국비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시설 보존 상태 및 기능 유지, 슬러지·협잡물 제거 상태 등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상수원 영향권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

도내 곳곳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전북자치도,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란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존경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6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보훈단체장, 전물군경유족 및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린 현충일 추모사이렌에 맞춰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헌시 낭송, 추념사, 팔괘라 사과나무 중창단과 함께하는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추념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은 연고자가 없어 찾은 발길이 적은 무연고 묘소를 찾아 헌화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13개 시·군에서도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경묘지, 충훈탑 등지에서 추념식을 동시에 각각 진행했다.

아울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훈행사를 추진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모범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보훈가족과 도민의 일상 속의 호국보훈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가 6월중 도내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민선8기 후반기, 도민 삶 개선 노력"

김관영 도지사, "제22대 국회서 현안법 신속 추진토록 도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된 지도 곧 2년이 된다면서 "그동안 거둔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마지막까지 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성과들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5월 21대 국회에서 전북 현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 대법법, 공공의대법, 전주가정법원법 등 현안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되도록 불을 지펴야 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북특별법 제·개정 등 성공했던 경험을 살려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현안 해결의지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화려한 장엄이 어린 곳! 내소사

남안가득한 변산해수욕장

노을담은 채색강 해식동굴

이번 여행도, 불안으로!

BYEON SAN

부안군

푸른바다와 노을 유쾌할 가득한 수성담

내륙 깊숙히 숨겨둔 보물 직소폭포